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문1~문4]

[앞부분의 줄거리] 오 일병과 ‘나’는 기동 훈련에 대비하여 참호를 파다가 철사에 갇힌 사람의 유골을 발견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인근 마을에 사는 한 노인을 모셔 온다. 그와 함께 유골을 수습하여 간단하게 장례를 지낸 뒤 노인을 배웅하는데, 이 과정에서 ‘나’는 공산주의 활동을 하다가 전쟁 중에 종적을 감춘 아버지와 관련된 과거를 떠올린다.

첫 휴가를 받아 집에 도착한 다음 날이었다. 방새 완행열차를 타고 내려와 집에 달자마자 쓰러지듯 잠에 빠져들었던 것이다. 눈을 비비며 일어났던 나는 ㉠그득한 밥상을 보고 놀랐다. 아이들처럼 연신 수줍은 웃음을 흘리며 어머니는 나를 쳐다보았다

참, 이상도 하지. 네가 온다는 말에만 정신이 팔려 깜박 잊고 있었는데, 글썩 오늘이 그 양반 생일이로구나.

누구 말예요?

느그 아버지 말이다.

얼굴에 그렇게 말해 놓고, 그제서야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황황히 내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도대체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어머니. 그 애긴 다시 꺼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진 죽은 사람이예요. 아니, 설사 살아있더라도 우리한테는 그게 백번 나아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냐. 애야. 아직 살아 계실지 누가 안다고 그래.

죽었어요. 그런 줄만 아시라니까요!

그래도……살아 있기만 하든야 언제고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데…….

나는 기어코 폭발하고야 말았다.

어떻게요? 이제 와서 대체 어떻게, 어떤 꼬락서니를 하고 서로 만난다는 말입니까, 네?

입에 씹히는 대로 나는 내뽠고 있었다. 손가락을 왼 손이 벌벌 떨릴 지경이었다.

아,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빌어먹을 놈의 이, 이……주동아리가 방정이지 뭐이다냐.

어머니는 훌쩍 등을 돌리고 앉았다. 그리고 주섬주섬 저고리셔를 끌어 올리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울고 있었다. 외아들 앞에 선 좀체 눈물을 비치지 않던 그녀였다. 아무리 알아누웠을 때라도 입을 양다물고 애써 태연해 보이던 그녀가 쫄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었다.

아아,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그토록 오랫동안 누군가를 기다려왔음을. 내 유년 시절의 퇴락한 고가의 마루 밑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음습하고 불길한 냄새와 함께 나를 쏘아보고 있던 한 사내의 눈빛을, 그리고 청년이 된 지금까지도 가슴을 새까맣게 그을려 놓으며 깊숙한 상흔으로만 찍혀 있을 뿐인 그 증오스런 사내의 이름을, 어머니는 스물다섯 해가 넘도록 혼자서 몰래 불씨처럼 가슴속에 키워 오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한테 그 사내는 다른 아무것도 아니었다. 다만 곱고 자상한 눈매로서만, 나직한 음성으로서만 늘 곁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울고 있는 건 그 미련스럽도록 끈질긴 기다림

때문만은 아니었으리라. 아니, 사실상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터였다. 그녀의 기다림이 얼마나 까마득하게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으로 자꾸만 자꾸만 밀려 나가고 있는 것인가를 말이다. 스물다섯 해의 세월이, ㉡스스로 묶어 놓은 그 완고한 기만이 목에 잠기어, 흐느낌도 없이 지금 어머니는 울고 있는 것이었다. 밥상을 받아 놓은 채 나는 고개를 처박고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우리 가족의 그 오랜 어둠과 같은 미역 가닥이 국그릇 속에서 멀겁게 식어 가고 있을 뿐이었다.

이제 노인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새 수북이 쌓인 눈을 밟으며 나는 오던 길을 천천히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깨에 멘 소총이 수통과 부딪치며 찼렁찼렁 소리를 냈다. 나는 어깨로부터 전해 오는 그 ㉢섬뜩한 쇠붙이의 촉감과 확실한 중량을 새삼스레 확인하고 있었다. 그리고 항상 누구인가를 겨누고 열려 있는 총구의 속성을, 그 냉혹함을, 또한 그 조그맣고 둥근 구멍 속에서 완강하게 따리를 틀고 앉아 있는 소름 끼치는 그 어둠의 깊이를 생각했다.

까우웁. 까우웁.

어느 틈에 날아왔는지 길 옆 밭고랑마다 수많은 까마귀들이 구물거리고 있었다. 온 세상 가득히 내려 쌓이는 풍성한 눈발 속에 저희들끼리만 모여서 새까맣게 구물거리며 농들은 그 음산함과 불길함을 역병처럼 퍼뜨리고 있는 것이었다. 얼핏, 쏟아지는 그 눈발 속에서 나는 얼어붙은 땅 밑에 새우등으로 웅크리고 누운 누군가의 몸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다. 아버지였다. 손발이 묶인 아버지가 이따금 돌아누우며 낮은 신음을 토해 내고 있었다. 나는 황량한 들판 가운데 서서 그 ㉣몸집이 크고 불길한 새들의 펄렁거리는 날갯짓과 구물거리는 모습을 오래오래 지켜보았다.

머리 위로 눈은 하염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함박눈이었다. ㉤굵고 탐스러운 눈송이들은 세상을 가득 채워 버리려는 듯이 밭고랑을 지우고, 밭둑을 지우고, 그 위에 선 내 밭둑을 지우고, 구물거리는 검은 새 떼를 지우고, 이윽고는 들판과 또 마주 바라보는 거대한 산의 몸뚱이마저도 하얗게 하얗게 지워 가고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새벽마다 샘물을 길어 와 소반 위에 떠서 올려놓곤 하던 바로 그 사기대접의 눈부시도록 하얀 빛깔이었다.

- 임철우, '아버지의 땅' -

1. ㉠~㉤을 등장인물의 심리와 연결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변함없는 기다림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② ㉡ : ‘나’가 느끼는 전쟁의 냉혹함과 압박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 : ‘나’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나야 할 전쟁의 희생자들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 : 아버지에 대한 증오의 감정에서 벗어나고 있는 ‘나’의 심정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2018. 03. 03.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11. 다음 중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 대해 탐구한 것 중
에서 올바른 것은?

<보기1>

‘-ㅁ/-음’에 대하여

- 명사형 어미 : 동사의 어간 뒤에 붙어서 동사를 명사형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동사의 명사형은 서술성이 있어 주어를 서술하며 품사가 변하지 않는다. 앞에 부사적 표현이 쓰일 수 있다.
- 접미사 : 동사의 어간 뒤에 붙어서 동사를 명사로 파생시킨다. 파생된 명사는 서술성이 없으므로 앞에 부사적 표현이 쓰일 수 없고, 관형어가 올 수 있다

<보기2>

- ㉠ 그의 선조들은 불우한 삶을 살았다.
- ㉡ 겨울이어서 노면에 얼음이 자주 얼었다.
- ㉢ 영희는 깊은 잠¹을 잠²으로써 피로를 풀었다.
- ㉣ 진행자가 크게 웃음으로써 분위기를 바꾸었다.

- ① ㉠의 ‘삶’의 ‘-ㅁ’은 명사형 어미이다
- ② ㉡의 ‘얼음’은 ‘얼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이다.
- ③ ㉢의 ‘잠’의 ‘-ㅁ’은 명사형 어미이고, ‘잠’의 ‘-ㅁ’은 접미사이다.
- ④ ㉣의 ‘웃음’은 ‘크게’의 수식을 받으므로 ‘웃음’의 ‘-음’은 접미사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문12~문14]

백옥섬 좋은 흠에 종종이 심어 내니
춘삼월 지난 후에 향기 없다 웃지 마소
㉠취한 나비 미친 벌이 따라올까 저허하네
정정한 저 기상을 여자밖에 누 벗할고
옥난간 긴긴 날에 보아도 다 못 보아
사창을 반개하고 차환*을 불러 내어
다 핀 꽃을 캐어다가 수(繡)상자에 담아 놓고
여공(女工)*을 그친 후에 중당에 밤이 깊고 납촉이 밝았을 제
나옴나옴 고초 앓아 흰 구슬을 갈아 마아
빙옥(氷玉) 같은 손 가운데 난만이 개여 내어
파사국* 저 제후의 흉산궁을 펼쳤는 듯
심궁 풍류 절고에 홍수궁을 마아는 듯
섬섬한 십지상(十指上)에 수실로 감아 내니
종이 위에 붉은 물이 미미히 숨의는 양
가인의 얇은 빵에 홍로를 끼쳤는 듯
㉡단단히 봉한 모양 춘나옥자 일봉서를 왕모에게 부치는 듯
춘면을 늦게 깨어 차례로 풀어 놓고
옥경대를 대하여서 팔자미*를 그리려니
난데없는 붉은 꽃이 가지에 붙었는 듯
손으로 우희려니 분분히 흠어지고
입으로 불러 하니 섞인 안개 가리었다

여반(女伴)을 서로 불러 낭랑이 자랑하고

- ㉠꽃 앞에 나아가서 두 빛을 비교하니
쪽 앞의 푸른 물이 쪽빛보다 푸르단 말이 아니 울을손가
은근히 풀을 매고 돌아와 누웠더니
녹의홍상 일여자가 표연히 앞에 와서
웃는 듯 찡그리는 듯 사례는 듯 하직는 듯
몽롱이 잠을 깨어 정녕이 생각하니
아마도 꽃 귀신이 내게 와 하직한다
수호*를 급히 열고 꽃 수풀을 점검하니
땅 위에 붉은 꽃이 가득히 수놓았다.
암암이 슬퍼하고 날날이 주워 담아
꽃다려 말 붙이니 그대는 한치 마소
세세연년의 꽃빛은 의구하니
하물며 그대 자취 내 손에 머물렀지
㉡동원의 도리화는 편시춘을 자랑 마소
이십 번 꽃바람의 적막히 떨어진들 뒤라서 슬퍼할고
규중에 남은 인연 그대 한 몸뿐이로세
봉선화 이 이름을 뒤라서 지어낸고 일로 하여 지어서라
- 작자 미상, ‘봉선화가’ -

- 차환 : 주인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젊은 계집종.
- 여공 : 부녀자들이 하던 길쌈질.
- 파사국 : 페르시아.
- 팔자미 : 몹시 성내어 얼굴을 일그러뜨렸을 때의 눈썹을 이르는 말.
- 수호 : 수를 놓은 휘장으로 가린 문.

1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상을 의인화하여 화자와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있다.
- ②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색채의 대비를 통해 대상에 대한 인상을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④ 화자와 청자가 말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13.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경박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표현해 봉선화의 정숙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 미화된 표현을 통해 정성스럽게 종이와 실로 손가락을 봉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③ ㉢ : 관용적 표현을 통해 봉선화 꽃물의 색보다 봉선화 꽃잎의 색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 두 대상에 대한 화자의 상반된 태도를 통해 화자와 봉선화와의 인연을 드러내고 있다.



2018. 03. 03.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14. 화자의 봉선화에 대한 태도와 가장 일치하는 것은?

- ① 동각에 숨은 꽃이 척촉(鄂襖)인가 두견화(杜鵑花)인가.
건곤(乾坤)이 눈이어늘 제 어찌 감히 피리.
알괘라 백설 양춘(白雪陽春)은 매화밖에 누 있으리.
- ②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은한(銀漢)이 삼경(三更)인 제
일지춘심(一枝春心)을 자규(子規) | 야 아라마는
다정(多情)도 병(病)인 낭하여 좀 못 드러 호노라
- ③ 추강(秋江)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낚시 드리우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무심(無心)한 달빛만 실고 빈 배 저어 오노라.
- ④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외를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
말슴도 우움도 아녀도 몰내 묘하호노라.

15. <보기>를 참고할 때, 다음 중 붙여 쓸 수 없는 것은?

<보기>

㉠ 나는 그 책을 거의 다 읽어 간다.
㉡ 나는 영희에게 사과를 깎아 주었다.

용언은 그 쓰임에 따라 본용언과 보조 용언으로 나뉜다. 본용언은 ㉠의 '읽어'처럼 문장의 주어를 주되게 서술해 주는 말로 보조 용언의 도움을 받는다. 반면에 보조 용언은 ㉡의 '깎아'처럼 본용언과 연결되어 그것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용언으로 자립성이 없어 단독으로 주어를 서술하지 못한다. 한글 맞춤법 규정 제47항에 따르면, 이와 같은 보조 용언은 띄어 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그런데 ㉡의 '주었다'처럼 단독으로 주어를 서술하는 것이 가능하면 본용언 뒤에 또 다른 본용언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두 본용언은 띄어 쓴다

- ① 철수가 농구를 하고 있다
- ② 그녀는 가족의 빨래를 빨아 말렸다.
- ③ 그는 부모님을 여윈 슬픔을 이겨 냈다.
- ④ 그녀는 하루 종일 어머니 일을 도와 드렸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문16~문19]

(가)

딩아 돌하 當今에 계상이다
딩아 돌하 當今에 계상이다
先王聖代에 노니와지이다

삭삭기 세물애 별헤 나는
삭삭기 세물애 별헤 나는
구은 ㉠밤 닷 되를 심고이다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有德하신 님을 여히와지이다

玉으로 蓮이고즐 사교이다
玉으로 蓮이고즐 사교이다
㉢바회 우희 接柱호요이다
그 고지 三同이 뛰거시아
그 고지 三同이 뛰거시아
有德하신 님 여히와지이다

- 정석가(鄭石歌) -

(나)

㉣살어리 살어리랏다
靑山애 살어리랏다
멀위랑 득래랑 먹고
靑山애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널라와 시름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을아래 가던 새 본다
임무든 장글란 가지고
을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청산별곡(靑山別曲) -

16.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 임에 대한 그리움을 열거의 방법으로 밝히고 있다.
- ③ (나)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나타나 있다.
- ④ (나) 반복적인 여음구의 사용으로 운율적 효과를 얻고 있다.

17.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작가는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상황이나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 ① ㉠ 밤
- ② ㉡ 바회
- ③ ㉢ 새
- ④ ㉣ 을아래



2018. 03. 03.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18. (가)의 시와 발상면에서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동지(冬至)스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춘풍 니불아리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 황진이 -
- ② 江山(강산) 죠흔 景(경)을 힘센이 타툼 양이면
내 힘과 내 분으로 어이하여 엇들손이
眞實(진실)로 금(禁)허리 업쓸씩 나도 두고 논이노라.
- 김천택 -
- ③ 나무토막으로 당닭을 깎아
젓가락으로 집어 벽에 앉히고
이 새가 꼬끼오 하고 울며 때를 알리면
어머님 얼굴은 비로소 서쪽으로 기우는 해처럼 늙으소서.
- 문충 '오관산요' -
- ④ 뿔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임의 손에
자시는 창밖에 심어 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잎이 나거든 나인가 여기소서.
- 홍량 -

19. ㉠와 운율의 형성 방법이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갈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 박두진 '해' -
- ② 강나루 건너서 / 밑발 길을 / 구름에 달 가듯이 / 가는 나그네.
- 박목월 '나그네' -
- ③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
다.
- 김소월 '진달래꽃' -
- ④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 푸른 산
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 어서 차마 떨
치고 갔습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문20~문22]

<앞부분 줄거리> 유광역은 영남 합천 사람으로 글을 잘 지었다. 과거를 보는 사람을 대신하여 글을 써 주며 생계를 꾸려 나갔는데, 날이 갈수록 유광역의 이름이 나라 안에 퍼 졌다. 이 소문을 들은 경시관과 경상 감사는 과거 시험에서 유광역의 글을 가려낼 수 있는지를 두고 내기를 한다.

경시관이 그 시권을 읽고서,
“이게 필시 유광역의 시야!”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어구가 빼어난 곳에 여기저기 붉은 먹으로 점을 찍고서 이하(二下)의 등급을 매겨 장원으로 뽑았다. 또 시권 하나가 제법 잘 되었으므로, 이하의 두 번째로 뽑고, 또 시권 하나를 삼등으로 뽑았다. 시권 머리의 봉해 둔 곳을 뜯어 이름을 확인하니 어느 시권에도 유광역의 이름이 없었다. 경시관이 남몰래 알아보게 했더니, 모두 유광역이 남의 돈을 받아 써 준 것으로, 재화의 많고 적음에 따라 글의 차

이를 낸 것이었다.

경시관은 비록 이 사실을 알아냈지만, 감사가 자기를 믿지 않을까 염려하여, 유광역의 자백을 받아서 증거를 삼으려고 했다. 그래서 공식 문건을 합천으로 내려보내 유광역을 잡아 올리게 했다. 재판을 일으킬 의도는 없었다.

유광역은 군에서 구속되어 감영으로 송치될 판이었다. 그는 두려운 마음에 스스로 생각했다

‘나야말로 과거 법규를 해치는 도적이니, 감영으로 가더라도 역시 죽을 것이다. 차라리 가지 않는 게 낫겠다.’

그는 밤에 친척을 모아 놓고 한껏 술을 마셔 댔다. 그리고는 몰래 강물로 나가 몸을 던져 죽었다. 경시관은 이 소식을 듣고는 애석하게 여겼다. 사람들 가운데 그의 재주를 아깝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

군자는 이렇게 논평했다.

㉠“유광역은 과거 법규를 해친 죄과 때문에 죽은 것이니, 마땅한 일이다.”

매화외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천하에는 팔지 못할 물건이 없다. 몸을 팔아 남의 노예가 되는 자도 있다. 심지어 가느다란 터럭과 형체가 없는 꿈에 이르기까지도 모두 사고판다. 그러나 아직 마음을 팔았다는 일은 없었다. 어찌 물건치고 다 팔 수 있거늘, 마음이라 하여 팔지 못하겠는가? 유광역 같은 자는 바로 그 마음을 판 자가 아니겠는가?

아! 누가, 천하에서 가장 천박한 매매를 글 읽는 자가 하리라고 생각하겠는가? 법으로 따지면 ‘주는 자나 받는 자나 같은 죄’이로 다.

- 이육, '유광역전'-

2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 인물의 전기(傳記)를 기록한 것이다.
- ② 높은 지위에 올랐던 실존 인물이 주인공이다.
- ③ 당대 시험 제도의 부조리함을 비판하고 있다.
- ④ 인물과 관련된 일화와 논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21. 윗글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광역은 능력이 뛰어났으나 단명한 인물이다.
- ② 경시관은 시 작품을 보는 안목이 매우 탁월하다.
- ③ 유광역은 생계를 위해 자신의 양심을 판 인물이다.
- ④ 경시관은 글을 파는 유광역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22. '군자'의 논평 ㉠과 '매화외사'의 논평 ㉡을 비교한 내 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군자는 유광역의 죽음을 합당한 결정이라 생각하였고, 매화외사는 유광역이 죽은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
- ② 군자는 유광역의 죽음이 당위적인 이유를 설명하였고, 매화외사는 유광역의 죽음이 우연적인 것이었음을 설명하였다



정답 및 해설

※[문1~4]출전: 임철우, '아버지의 땅'

1. 해제: '아버지의 땅'은 서술자 '나'가 군사 훈련을 받던 중 우연히 발견하게 된 유골을 통해 전쟁이 남긴 상처와 그 극복 의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나'는 유골을 발견한 순간 좌익 인사로 행방불명된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고, 그 아버지를 기다리는 어머니를 회상한다. 작가는 이렇듯 현재의 유골 수습과 '나'의 기억 회상이 중첩되는 이중 구조를 통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는 이념 대립의 비극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나'가 아버지에게 연민을 느끼며 이해하고 보듬게 되는 결말을 통해 화해와 통합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2. 핵심 정리

- 1) 갈래 : 단편 소설, 분단 소설
- 2)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 3) 주제 : 이념 대립이 가져온 아픔과 그 극복, 아버지에 대한 이해와 용서
- 4) 표현상의 특징 : 서술자는 현실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 그리고 과거의 환영을 교차시키며 서술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시점을 교차시키면서 인물의 내면 풍경을 묘사하고, 줄거리를 이어 나가는 구성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까마귀, 흰눈 등 상징적 소재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3. 제목의 의미 : 참호를 파다 받고랑에서 발견된 무연고 유골은 오랜 세월 동안 철사줄에 묶어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의한 억압적 상황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화자의 삶을 제약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과 중첩된다. 따라서 '아버지의 땅'이라는 제목은 아버지의 시대로부터 상속을 받아 민족사의 양금으로 남아 있는 비극적인 분단 상황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4. 전체 줄거리

전방에서 군 복무 중인 '나'는 기동 훈련에 대비하여 경계용 참호를 파다가 유골 한 구를 발견한다. 몇 겹이나 되는 철사줄에 감겨 있는 유골을 보고 '나'는 불현듯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린다. '나'는 아버지가 없이 자랐고, 중학생이 되어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6·25 때 좌익 활동을 하다가 행방불명되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후 '나'에게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죄책감처럼 따라붙게 되었다. 유골의 묘를 새로 만들어 주기 위해 동네 노인을 불러오고, 노인은 정성을 다해 유골을 수습한다. '나'는 노인을 배웅하며 자신의 유년 시절을 지배했던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아버지를 기다리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린다. 돌아오는 길에 눈이 내리고, '나'는 눈으로 인해 모든 경계가 지워지는 모습을 본다.

5. '눈'의 상징성 : '눈'은 '까마귀'가 대조되어 있다. 까마귀가 불길함을 상징한다면, 눈은 그것을 지우는 것으로 표상된다. 시체가 묻혔던 받고랑도 지우고, 이념 갈등으로 충돌했던 그 참혹의 현장이었던 산도 지우고, 그 동안 내가 지녔던 편견과 몰이해를 지운다. 순백의 눈으로 원래의 순수를 되찾아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증오의 마음을 사랑으로 바꾸게 하는 것이다.

01 ③ 현대소설-문맥의 상징적 의미

③의 '까마귀'는 지문에서 '음산함과 불길함을 역병처럼 퍼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불길함, 죽음, 이념적 대립, 화해를 방해하는 세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의 '그득한 밥상'은 어머니가 아버지의 생일을 기억하여 차린 밥상이다. 따라서 어머니는 아버지를 여전히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은 '나'의 '어깨에 멘 소총이 수통'에서 느끼지는 '총구의 속성', '냉혹함', '소름 끼치는 그 어둠'이므로 '나'가 느끼는 전쟁의 냉혹함과 압박감을 의미한다.

④ ㉢의 '눈'은 이념과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는 사랑과 용서의 감정을 의미한다. 이 작품에서 '눈'은 '까마귀'가 대조되어 있다. 까마귀가 불길함을 상징한다면, 눈은 그것을 지우는 것으로 표상된다. 시체가 묻혔던 받고랑도 지우고, 이념 갈등으로 충돌했던 그 참혹의 현장이었던 산도 지우고, 그 동안 내가 지녔던 아버지에 대한 증오의 마음도 지워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증오의 마음을 사랑으로 바꾸게 하는 것이다. 즉 주인공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의미한다.

02 ③ 현대소설- 표현상 특징

서술자는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시점을 교차시키면서 줄거리를 이어 나가는 구성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장면 전환이 사건의 긴박함을 나타내주는 것은 아니다. 이로 인해 작품에는 유골을 발견하는 현재 이야기와 아버지와 관련된 과거 이야기가 중첩되는 이중 구조가 나타난다. 작가는 이중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어머니를 평생 잊어매고 있었던 굴레가 바로 '나'를 잊어매고 있던 굴레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며, 분단의 문제가 어제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제시 지문의 앞 부분에서는 '나'가 첫 휴가를 받아 집에 도착한 다음 날, 아버지의 생일상을 차린 어머니와 대화를 통한 갈등이 드러나 있다.
- ② 작품 속 서술자가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 ④ 공산주의자로 월북한 아버지에 대한 과거의 '나'의 증오는 현재의 발굴 작업을 통하여 어머니를 이해하고, 또한 '나'가 아버지에게 연민을 느끼며 이해하게 된다.

03 ③ 현대소설- 자료를 통한 작품의 감상

<보기>에서 이 작품은 '이데올로기의 상흔과 그것을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 잘 형상화'되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③의 좌절과 '나'의 무기력한 모습에 반영되어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눈'과 '하얀 사기대접'은 순백의 색으로, <보기>에서 설명한 '이데올로기의 상흔을 치유해 나가는 과정'과 연관되어 있다.
- ② '나'가 아버지에 대해 어머니와 대립하는 모습에서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초래한 개인의 동요를 발견할 수 있다.
- ④ '아버지의 땅'이라는 제목은 아버지의 시대로부터 남아 있는 비극적인 분단 상황을 상징하므로 <보기>의 '전후 세대가 유산처럼 안게 된 이데올로기의 상흔'이라는 설명과 부합한다.

04 ① 현대소설-인물의 심리

어머니는 아버지의 생존 가능성이 없음에도 아직도 살아 있을 것이라고 하며 그런 가능성을 부정한다. 이는 자신마저 숨기려는 기만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05 ① 비문학-빈칸 내용 추론

고전적인 공리주의의 효용을 근거로 한 것이 비용편익분석이며, 어떤 정책이나 행동이 얼마만큼의 행복을 가져오고 동시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가를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그 차액으로 정책이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다. 4단락에서는 포드사의 사례로 결함을 수리할 것인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비용편익분석을 하고, '결함을 개량하는 데 드는 비용이 편익보다 많기 때문에 인명이 희생되더라도 결함을 개량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결정'하였다는 설명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에는 ①의 '수리의 편익'이 가장 적절하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8년 3월 3일 법원직 9급 국어 해설

2018. 03. 03.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06 ③ 비문학-빈칸 내용 추론

㉠의 앞에 제시된 '인명 희생의 방지나 정당화와 같이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답을 이끌어낸 사례'의 문제가 아닌 것은 ③번이다.

07 ① 비문학-글의 서술 방식

두 번째 단락에서는 공리주의의 효용을 근거로 한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셋째 단락과 넷째 단락에서는 '필립 모리스'와 '포드사'를 사례로 제시하였다.

[오답 풀이]

- ② 비교와 대조는 드러나지 않았다
- ③ 비용편익분석이 공리주의의 효용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이를 통하여 설득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마지막 단락에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의 문제가 제기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문8~10]출전: 박지원, '허생전'

1. 해제: 이 작품은 비판적 지식인인 '허생'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당대 집권층인 사대부의 무능과 허위의식을 비판하고 올바른 현실 인식과 사회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한문 소설이다.

2. 핵심정리

1) 갈래 : 한문 소설, 풍자 소설

2) 성격 : 풍자적, 비판적

3) 주제

① 지배층인 사대부의 무능과 허위의식 비판

② 지배층의 각성 촉구

4) 특징

①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당대 사회의 모순을 풍자함.

② '빈 섬'을 통해 이상향의 구체적 모습을 제시함.

③ '허생'이라는 영웅적 인물의 행적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함.

3. 전체 줄거리

남산 밑 묵적굴(墨積洞)에 살며 책 읽기만 즐겨하던 가난한 선비인 허생은, 어느 날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아내의 질책을 듣고 장안의 부자인 변씨를 찾아가 만 냥을 빌린 후 과일과 말총을 매점 매석하여 큰돈을 번다. 이후 도적의 소굴로 찾아가 도적들을 설득한 뒤, 이들을 이끌고 미리 보아 둔 빈 섬으로 들어가 농사를 지으며 살도록 한다.

이곳에서 농사와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한 허생은 자신의 이상국 건설 시범을 마친 뒤 섬에서 나와 나라 안의 빈민을 구제한다. 변씨의 이야기를 들은 이완 대장이 허생의 사람됨을 알고 찾아와 인재를 구할 방법을 묻는다. 이에 허생은 시사 삼책을 제시하지만, 이완 대장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허생은 지배층의 허례허식을 비판하면서 이완을 내쫓는다. 다음 날 허생은 자취를 감춘다.

08 ④ 고전문학-작품의 종합적 감상

허생의 시험은 장사로 돈을 버는 것, 사회 부조리(도둑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국을 건설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상업 경제의 중요성을 부각한 것이다. 즉 영토 확장과는 관계가 없다.

[오답 풀이]

① '묵적굴', '남산', '변산' 등의 실제 지명을 사용함으로써 소설에 현실감을 부여하고, 부인과의 대화를 통해 갈등의 원인이 허생의 경제적 무능력함이고, 이는 곧 실학사상을 고취하고자하는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다.

② 허생 개인의 힘으로 도둑의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것은 허생의 영웅적 면모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국가의 무능과 양민이 도둑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③ 군도들과의 대화를 통해 도둑의 발생이 경제 구조의 모순, 즉 최소한의 생활 여건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현실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작가는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경제적인 문제와 직결된 것이므로, 경제의 발전만이 사회적인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09 ② 고전문학-문맥의 의미

'장인바치'나 '장사' 등은 경제적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용적인 직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바람직한 직업'이라는 것은 아니다. 사(士)·농(農)·공(工)·상(商)의 위계(位階) 중 사(士)만 절대 우위에 두었던 조선 시대에, 공·상을 사(士)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으로, 작가의 실학사상이 반영된 부분이다.

[오답 풀이]

① 글을 읽어도 과거시험을 보지 않는 허생을 비판한 것으로, 아내가 생각한 글 읽기의 목표는 입신양명(立身揚名)의 현실적, 실용적 학문관이다.

③ 궁핍한 생활에도 글 읽기만 좋아하는 허생의 글 읽기는 입신양명(立身揚名)이 아닌 도(학문 탐구, 인격 수양)의 수단임을 알 수 있다.

④ 자본주의의 핵심인 '돈'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표현한 것으로, 상업 자본주의 사상과 근대 의식이 드러나고 있다.

10 ④ 한문- 적절한 한자성어

㉠의 '입에 풀칠하다'는 가난한 살림에서 그저 겨우 먹고살아 가는 방식을 뜻하는 '호구지책(糊口之策)'이다. 가난과 관련된 성어가 아닌 것은 ④의 '권토중래(捲土重來)'이다. '권토중래(捲土重來)'는 흙먼지를 날리며 다시 온다는 뜻으로, 한 번 실패에 굴하지 않고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남을 뜻한다.

① 상루하습(上漏下濕: 上 윗 상/漏 새 루/下 아래 하/濕 젖을 습) 위에서 비가 새고 아래에서는 습기가 오른다는 뜻으로, 매우 가난한 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삼순구식(三旬九食: 三 석 삼/旬 열을 순/九 아홉 구/食 밥 식) 삼순, 곧 한 달에 아홉 번 밥을 먹는다는 뜻으로, 집안이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다는 말.

③ 가도사벽(家徒四壁: 家 집 가/徒 다만 도/四 녀 사/벽 벽 벽) '집안이 네 벽뿐'이라는 뜻으로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이르는 말.

④ 권토중래(捲土重來: 捲 말 권/土 흙 토/重 무거운 중/來 올 래) 흙먼지를 날리며 다시 온다는 뜻으로, ㉠ 한 번 실패에 굴하지 않고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남. ㉡ 패한 자가 세력을 되찾아 다시 쳐들어옴.

11 ② 현대문법-접사와 어미의 구별

㉡ ㉢의 '얼음'은 서술성이 없고, 주격조사가 결합하여 서술어 '얼었다'의 주어의 기능을 하므로 명사화 접사가 결합한 파생명사이다. 참고로, 서술어 '얼다'는 한 자릿수 서술어로서 부사어 '노면에'는 필수 부사어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의 '살'은 관형어 '불우한'의 수식을 받고, '선조들은 불우한 살다'와 같이 쓰일 수 없으므로 서술성이 없다. 따라서 파생명사이다.

③ ㉡의 '잠'은 관형어 '깊은'의 수식을 받고, '영희는 깊은 자다'와 같이 쓰일 수 없다. 따라서 서술성이 없는 파생명사이다. '잠?'은 '잠을 자다'와 같이 서술성이 있으므로 동사의 어간에 명사형 어미가 결합한 구성이다.

④ ㉢의 '웃음'은 부사어 '크게'의 수식을 받고, '진행자가 웃다'와 같이 서술성이 있으므로 동사의 어간에 명사형 어미가 결합한 구성이다.



※[문12~14]출전: 작자 미상, '봉선화가'

1. 해제: 작자와 연대 미상인 내방 가사로, 봉선화꽃잎을 따서 손톱에 물 들이던 고유한 풍속을 소재로 하여 여인의 아름다운 정서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2. 핵심 정리

1) 갈래 : 내방 가사

2) 주제 : 봉선화에 어리비친 여인의 아름다운 정서

봉선화와 규방여인의 인연, 봉선화에 대한 여인의 정서

3) 특징 :

① 의인법, 직유법 사용

② 문답법으로 내용 전개

③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④ 여성들의 일상사와 여성들의 섬세한 감각으로 밝은 생활의 정서를 나타냄.

⑤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봉선화를 대하는 정감이 섬세하게 표현됨.

⑥ 백화보에서 봉선화를 보고 봉선화의 아름다움을 예찬함.

4) 구성: 수미상관의 구조

• 본사(1) : 정숙한 여인의 기상인 향기 없는 봉선화

• 본사(2) : 손톱에 봉선화 물을 들이는 모습

• 본사(3) : 봉선화물이 든 손톱의 아름다움

• 결사 : 규중 여인(화자)과 봉선화와의 인연

3. 현대어 풀이(제시 부분)

1) 본사 1 - 향기 없는 봉선화는 정숙한 여인의 기상

회고 고운 섬돌 깨끗한 흙에 촘촘히 심어 내니,

봄 삼월이 지난 후에 향기가 없다고 비웃지 마시오.

취한 나비와 미친 벌들(방탕하고 경박스러운 남자를 비유)이 따라올까 두려워서라네.

정숙하고 조용한 저 기상을 여자 외에 누가 벗하겠는가?

2) 본사 2 - 손톱에 봉선화 물을 들이는 모습

옥난간에서 긴긴 날 보아도 다 못 보아,

사창(여인이 기거하는 방의 창)을 반쯤 열고 차환(가까이 두는 젊은 여자 종)을 불러내어,

다 핀 봉선화꽃을 따서 수상자에 담아 놓고,

바느질을 중단한 후 안채에 밤이 깊어 밀춧불이 밝았을 때,

차츰차츰 꽃잎이 얹어 흰 백반을 갈아 바수어,

옥같이 고운 손 가운데 흐물러지게 개어 내니,

페르시아 제후가 좋아하는 붉은 산호 궁궐을 헤쳐 놓은 듯하며,

깊은 궁궐에서 절구에 붉은 도마뱀을 빨아 놓은 듯,

가늘고 고운 열 손가락에 수실로 감아 내니,

종이 위에 붉은 물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모양은,

미인의 뺨 위에 홍조가 어리는 듯하며,

단단히 묶은 모양은 비단에 옥으로 쓴 편지를 서왕모(신선이 산다는 곤륜산에 사는 선녀)에게 부치는 듯하다.

3) 본사 3 - 봉선화 물이 든 손톱의 아름다움

봉장을 늦게 깨어 열 손가락을 차례로 풀어 놓고,

거울 앞에서 눈썹을 그리려고 하니,

난데없이 붉은 꽃이 가지에 붙어 있는 듯하여,

(그것을) 손으로 잡으려 하니 어지럽게 흩어지고

입으로 불려고 하니 입김에 가리워 보이지 않는다.

여자 친구를 불러서 즐겁게 자랑하고,

봉선화 앞에 가서 꽃과 손톱을 비교하니,

쪽 앞에서 나온 푸른 물이 쪽빛보다 푸르단 말, 이것이 아니 옳겠는가?

4) 결사 - 규중 처자와 봉선화와의 인연

은근히 풀을 매고 돌아와서 누웠더니

푸른 저고리와 붉은 치마를 입은 한 여자가 출연히 내 앞에 와서,
웃는 듯, 찡그리는 듯, 사례하는 듯, 하직하는 듯하다.

어렴풋이 잠을 깨어 곰곰이 생각하니,

아마도 꽃 귀신이 내게 와서 하직을 하는 듯하다.

수호(수놓은 방장으로 가린 문)를 급히 열고 꽃 수풀을 살펴보니,

땅 위에 붉은 꽃이 떨어져서 가득히 수를 놓았다.

마음이 상해서 슬퍼하고 날날이 주워 담으며

꽃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한스러워 마소.

해마다 꽃빛은 옛날과 같으며,

하물며 그대[봉선화] 자취가 내 손톱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동산의 도리화(복숭아꽃과 오얏꽃)는 잠깐 지나가는 봄을 자랑하지 마소.

이십사 번('이십사번 화신풍(二十四番花信風: 소한에서 곡우까지 5일마다

봄바람이 분다하여 꽃 한 가지씩을 배당했음)을 말함) 꽃바람에 (그대들

[도리화]이) 적막하게 떨어지든, 누가 슬퍼하겠는가?

안방에 남은 인연이 그대 한 몸뿐일세.

봉선화 이 이름을 누가 지었는가? 이렇게 해서 지어진 것이로구나!

12 ④ 고전문학-표현상 특징

④ '꽃다려 말 붙이니 그대는 한치 마소'에서 '봉선화'를 '그대'로 의인화해 말을 건네며 대상에게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화자는 자신의 손톱에 봉선화물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 시든 것을 한하지 말라고 혼자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화자와 청자가 말을 주고받는 방식'은 아니다. 또한 마지막 구절 '봉선화 이 이름을 뉘라서 지어낸고 일로 하여 지어서라'는 자문자답의 형식이다.

[오답 풀이]

① 꿈 속에서 본 '녹의홍상 일여자'와 마지막 부분의 '그대'는 봉선화를 의인화한 표현이다.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봉선화 물들이기 과정이 다음과 같이 전개되고 있다.

㉠다 핀 꽃을 캐어다가 수(繡)상자에 담아 놓고 → ㉡흰 구슬을 갈아 마아 빙옥(氷玉) 같은 손 가운데 난만이 개어 내어 → ㉢섬성한 십지상(十指上: 열 손가락)에 수실로 감아 내니 → ㉣차례로 풀어 놓고

③ '흰 구슬을 갈아 마아 빙옥(氷玉) 같은 손 가운데 난만이 개어 내어'라는 구절은 화자가 붉은 봉선화 잎에 흰 백반을 갈아 자신의 손톱 위에 올려놓는 과정으로서 붉은 색과 흰 색의 대비가 드러나 있다. 또한 '흰 구슬'과 '빙옥(氷玉) 같은 손'에서 백색의 이미지, '홍산궁(붉은 궁궐)'과 '홍수궁(붉은 도마뱀)'에서 붉은 색의 이미지가 드러나 있다.

13 ③ 고전문학-시어의 의미

③ ㉢은 한자성어 '청출어람(靑出於藍)과 관련된 표현이다. 이는 '쪽 풀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빛보다 더 푸르다'는 뜻이므로 '봉선화 꽃잎의 색보다 봉선화 꽃물의 색이 더 아름답다'는 표현이 되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의 앞 부분에 '고운 섬돌 깨끗한 흙'은 맑고 깨끗한 곳에서 사는 봉선화의 특성을 드러내는데, 봉선화의 정숙한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 ㉡의 '취한 나비 미친 벌'은 경박한 남자를 비유한 것으로, 정숙한 여인들이 멀리해야 하는 대상을 빗댄 시어들이라 할 수 있다.

② '미화(美化)'란 아름답게 꾸며서 표현하는 것이다. ㉢은 종지와 실로 손가락을 단단히 묶은 모습을 서왕모에게 부친 편지에 비유하고, 앞의 '가인의 얇은 뺨에 홍조를 끼쳤는 듯'은 손톱을 감싼 종지에 빨은 봉선화의 붉은 물이 스미는 모습을 비유한 미화적 표현이다.

④ ㉣은 화자가 도리화(복숭아꽃과 오얏꽃)에게 말을 건네며 복숭아꽃과 봉선화를 대조하고 있다. 봉선화의 꽃빛은 옛날과 같으며, 자취(봉선화물)가 화자의 손톱에 머물러 있으므로 시든 것을 한스러워 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도리화(복숭아꽃과 오얏꽃)에게는 적막하게 떨어지든 슬



퍼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 '자취(봉선화물)가 화자의 손톱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대(봉선화)'와의 인연을 강조한 것이다.

14 ① 고전문학-대상에 대한 태도

'봉선화가'는 화자가 손톱에 봉선화꽃물을 들이게 되는 과정과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봉선화를 예찬하고 있다. ①은 안민영의 '매화사' 중 여덟 번째 수로, 추운 겨울에 피는 유일한 꽃인 매화에 절개와 지조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를 예찬하고 있다.

- ① 안민영의 '매화사' 중 여덟 번째 수로, 추운 겨울에 피는 유일한 꽃인 매화에 절개와 지조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를 예찬하고 있다.
- ② 이조년의 '다정가(多情歌)'로서 봄밤의 애상적인 정서가 드러나 있다.
- ③ 월산대군의 '한정가'로서, 가을 달밤의 아름다운 자연의 정취와 유유 자적하는 삶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④ 윤선도의 '만흥(漫興)'중 셋째 수로, 자연을 즐기는 작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15 ② 국어생활-띄어쓰기

<보기>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은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관계로,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고, ㉡은 본용언 뒤에 또 다른 본용언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두 용언은 띄어써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어진 선지 중에 본용언 뒤에 본용언이 결합되어 붙여 쓸 수 없는 경우를 찾아야 한다. ②의 '빨아 말렸다'는 본용언과 본용언의 관계로서 붙여 쓸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의 경우 '하고'가 본용언이고 '있다'가 보조용언이지만 보조적 연결어미 '-고'로 연결된 경우이므로 붙여 쓸 수 없다. <보기>의 내용은 본용언과 본용언의 관계로 붙여 쓸 수 없는 경우를 찾는 것이므로 답이 될 수 없다.
- ③와 ④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관계로서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는 경우이다. 붙여 쓸 수 있는 보조용언은 ㉠'-아/-어' 뒤에 연결되는 보조 용언, ㉡의존 명사에 '-하다'나 '-싶다'가 붙어서 된 보조 용언의 경우이다.

※[문16~19]출전

(가) 고려속요, '정석가(鄭石歌)'

1. 해제: 이 작품은 여러 가지 실현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사랑하는 임과 이별하지 않겠다는 시적 화자의 강한 의지를 노래한 고려 가요이다.
2. 핵심정리
 - 1) 갈래 : 고려속요
 - 2) 주제 : 태평성대 기원,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 3) 특징
 - ① 대부분의 고려 가요가 이별이나 향락의 정서를 노래한 데 반해, 이 작품은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노래함.
 - ②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하는 역설적 표현으로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소망하는 시적 화자의 정서가 효과적으로 드러남.
 - ③ 시구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살리면서 상황과 정서를 강조함.

3. 현대어 해석(제시 부분)

징이여 돌이여 (임금님이) 지금에 계십니다.
태평성대에 노닐고 싶습니다. (태평성대 희구)

바삭바삭 소리가 나는 가는 모래로 된 벼랑에
구운 밤 다섯 되를 심습니다.

그 밤이 움이 돌아 싹이 나아만
덕행이 있으신 우리 임을 이별하고 싶습니다. (임과의 이별에 대한 거부)

옥돌로 연꽃을 새깁니다.
그것을 바위 위에 갖다 붙입니다.
그 꽃이 세 묶음이 피어야만
덕행이 있으신 우리 임을 이별하고 싶습니다. (임과의 이별에 대한 거부)

(나) 고려속요, '청산별곡(靑山別曲)'

1. 해제: 이 작품은 고려 시대 민중들의 삶의 애환을 다룬 대표적인 고려 가요로, 뛰어난 음악적 효과와 감각적 언어 사용 및 고도의 상징성이 돋보인다.
2. 핵심정리
 - 1) 갈래 : 고려속요
 - 2) 성격 : 현실 도피적, 애상적
 - 3) 주제 : 삶의 고뇌와 비애 / 실연의 슬픔 /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민의 슬픔
 - 4) 특징
 - ① 'ㄹ, ㅇ' 음의 어울림에서 빛어내는 음악성이 돋보임.
 - ② 반복과 상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16 ② 고전문학-작품의 표현상 특징

② (가)의 2연과 3연은 유사한 구조로 반복되어 있다. 그러나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하는 역설적 표현으로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소망하는 시적 화자의 정서를 나타낸 표현이다.

[오답 풀이]

- ① (가)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임과 이별하지 않겠다'는 강한 소망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③ (나)의 1연에서 '청산'은 화자가 바라는 이상향 또는 현실도피처라고 할 수 있는데,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나타낸 것이다.
- ④ (나)의 후렴구는 'ㄹ, ㅇ'을 반복하여 운율적 효과를 얻고 있다.

17 ③ 고전문학-시어의 기능

제2연에 나오는 '새'는 작중 화자의 괴로움을 함께 나누어 주는 새이다. 곧 동병상련(同病相憐)을 느끼게 하므로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다.

18 ③ 고전문학- 표현상 특징

(가) 시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표현방식이 드러난 것은 ③이다. 효성이 지극했던 문충이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어머니가 늙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황진이이 연정가(戀情歌)
추상의 시간(동지(冬至)^\s돌 기나긴 밤)을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하여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였다.
- ② 김천택의 강호한정가로서, 중장에서 설의법을 사용하였다.
- ④ 홍량의 이별가(離別歌)로서 초장에서 도치법이 쓰였고, 화자의 사랑과 정성을 의미하는 '뫼버들'은 화자의 분신이다.

19 ① 고전문학-시가의 운율형성 방법

㉠은 3·3·2조의 3 음보, a-a-b-a 운율구조이다. ①의 작품에서도 '해야 솟아./해야 솟아라/말갈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의 a-a-b-a 운율구조가 드러난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8년 3월 3일 법원직 9급 국어 해설

2018. 03. 03.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오답 풀이]

②는 직유법, ③은 7·5조의 음수율, 3음보의 민요조 율격, ④는 ‘푸른 산빛’과 ‘단풍나무 숲’이 대조되었고, 여성적, 영탄적 어조가 나타난다.

※[문20~22]출전: 이옥, ‘유광역전’

1. 해제: 이 작품은 가난하고 지위가 낮아 시험지의 답안까지 팔았던 주인공 유광역의 불법적, 비도덕적 행위와 함께 세상에 팔지 못할 물건이 없게 된 시대 현실의 타락상을 동시에 비판하고 있다.

2. 핵심정리

1) 갈래 : 고전 소설, 한문소설, 송사소설, 세태 소설

2) 성격 : 현실 비판적, 경세적

3) 주제 : 과거 시험 부정행위와 타락한 시대상 비판

4) 특징

① 특정 인물의 행위를 통해 당대의 부정적 세태를 드러냄.

② 일화에 대한 작가의 논평을 제시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함.

3. 전체 줄거리

• 발단: 유광역은 가난하고 지체가 낮지만 과시(科試)를 잘하기로 소문이나 후한 대우를 받고 부잣집 주인의 아들을 위해 대리 답안을 작성해 준다.

• 전개: 유광역은 돈을 받고 답안을 대신 작성해 주는 부정행위를 계속한다.

• 위기: 경상 감사와 경시관은 유광역의 글을 찾아낼 수 있는지 내기를 하고 우수 답안을 확인해 보지만 유광역이라는 이름이 없음을 확인한다.

• 절정: 경시관은 우수 답안들이 모두 유광역의 것임을 밝히고 증거를 얻기 위해 유광역을 잡아 오라는 명령을 내린다.

• 결말: 유광역은 잡혀가면 죽음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하여 강물에 빠져 죽는다.

• 논평: 돈이면 뭐든지 사고팔 수 있는 타락한 시대에 마음까지 파는 행위가 나타났으며, 양심을 파는 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요구하는 자에게도 죄가 있다.

20 ② 고전문학-작품의 종합적 감상

이 작품은 가난하고 지위가 낮아 시험지의 답안까지 팔았던 주인공 ‘유광역’이라는 허구적 인물의 일대기이며, 자신의 행위가 밝혀지자 강을 몸을 던져 자살한다.

[오답 풀이]

① ‘유광역’이라는 한 인물의 일생 동안의 행적을 기록한 ‘전(傳記)이다.

③ 이 작품의 주인공인 ‘유광역’은 대리 시험을 치거나 대신 시문을 작성해 주고 돈을 받는 인물이다. 당대에 만연해 있던 부정행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은 세상에 팔지 못할 물건이 없게 된 상황을 보여 준다.

④ 유광역이라는 인물과 관련된 일화이며, 마지막 ‘매외외사’에 전하는 작가의 논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화외사(梅花外史)』는 조선 후기의 문인 이옥의 시문집이며, 호(號)이다. 즉 작가 자신을 가리킨다.

21 ④ 고전문학-내용확인하기

경시관은 재판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고, 유광역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겼다. 따라서 ④의 설명은 바르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글을 잘 지었던 유광역은 과거를 보는 사람을 대신하여 글을 써 줄 정도로 능력이 뛰어났으나 결국 자살한다.

② 경시관은 유광역의 뛰어난 시 작품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다.

③ 유광역은 가난하고 지체가 낮아 생계를 위해 대리 답안을 작성해 준다.

22 ③ 고전문학-내용의 평가

㉠의 군자는 유광역이 자신의 죄과 때문에 죽었으므로 마땅하다고 논평하였다. 이는 개인적 측면의 논평이다. 그러나 ㉡의 매화외사는 돈이면 뭐든지 사고팔 수 있는 타락한 시대에 마음까지 파는 행위가 나타났으며, 양심을 파는 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요구하는 자에게도 죄가 있고 논평한다. 이는 당대의 부정적 세태가 만연한 사회에 대한 비판과 그러한 문제가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군자는 유광역의 죽음을 마땅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매화외사가 유광역이 죽은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는 내용은 없다.

② 매화외사는 유광역의 죽음이 우연적인 것이라는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④ 매화 외사의 논평에 유광역의 죽음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제시되지 않았다.

23 ③ 비문학-논지 전개방식

첫째 단락과 둘째 단락에서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밀도가 작아지는 물질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머지 단락에서는 밀도와 관련된 물의 특성을 설명하고, 얼음덩어리, 빙산, 호수나 연못의 물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대립 현상과 그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았다.

② 현상과 가설의 차이점을 설명한 글이 아니다.

④ 표면적 현상과 내면적 의미의 결과를 분석한 글이 아니다.

24 ① 비문학-접속어

접속어는 앞, 뒤 문장의 연결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의 앞 내용은 ‘물 분자들은 움직임이 점점 느려지고 서로 간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밀도가 증가하는 것’이다. ㉡의 뒤 문장의 내용은 ‘물 분자들이 서로 멀리 떨어지기 시작한다.~물 분자들은 더욱 멀리 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의 글에서 서술한 사실과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므로 역접 접속어가 적절하다.

25 ④ 현대문법-단어의 형성

㉠의 ‘알부자’에서 ‘알-’은 ‘진짜, 알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서, ‘알(접두사)+부자(명사)’의 구성으로 된 파생어이다.

[오답 풀이]

①의 ‘슬픔’은 ‘슬프(형용사의 어근)+ㅁ(명사화 접사)’의 구성으로 된 파생어이다. 어근 ‘슬프다’의 품사가 형용사였으나 명사화 접사와 결합하여 명사가 되었으므로 품사가 바뀐 것이다.

②의 ‘휘감다’에서 ‘휘-’는 ‘마구, 매우 심하게’의 뜻을 보태는 접두사이다. ‘휘(접두사)+감다(용언)’의 구성으로 된 파생어이다.

③의 ‘새해’는 ‘새(관형사)+해(명사)’의 구성으로 된 통사적 합성어이다.